

나긋하지만 단호한

January 2022 | 허호정

Page 1 of 4

FOCUS

나긋하지만 단호한

알렉스 카츠展 2021. 12. 9~2. 5 테두우스로파크 서울
루이스 부르주아展 2021. 12. 16~1. 30 국제갤러리

무해할 수는 있으나 중립적인 것은 없다. 무해한 것은 자주 연약하고 때로 보잘것없으며, 대개 공격의 의지를 결여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이 존재의 역능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거나, 그의 입장이나 태도를 미온적인 담보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위협 없는 유약한 것들은 늘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상상적인 중립 지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가장자리를 택했다.

알렉스 카츠의 개인전과 루이즈 부르주아의 개인전은 두 작가가 풀/꽃을 주제 삼으며 만든 유약하고도 무해한 이미지들을 선보인다. 그런 한편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성취한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게 한다. 특기할 만하게도, 두 전시는 장장 70년이 넘도록 작품 활동에 매진한 두 작가가 만년에 완성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이 후기 작업들은 부르주아와 카츠 각각이 긴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심 갖는 주제와 표현 방식을 되풀이, 변주하여 도달한 어떤 상태를 증명한다. 루이즈 부르주아의 에칭 프린트작업들은 바삭 말라 향까지 박제된 유칼립투스, 이름 모를 풀의 줄기, 배배 꼬여 유기체적인 움직임 보이는 형상을 우아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태연하게 무해하며 장식적으로까지 여겨지는 광경 앞에서 보는 이는 단순하지 않은 서사와 역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알렉스 카츠의 살랑이는 봄꽃 그림에는

어디에도 위협적인 구석은 없고, 산뜻하고 직관적으로 마무리된 형상만이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카츠의 그림은 단호한 자기 표명을 시도한다.

안으로 향하는 운동

루이즈 부르주아는 자신의 조각이 곧 자신의 신체라고 말했다. 그의 조각은 철, 동, 나무, 돌과 같은 전통적인 질료로 상당한 무게와 스케일을 자랑하는 반면, 백인 남성 주도의 조각이 가진 남근적 형상과 직립한 기념비적 방식을 벗어나 무언가를 담거나 운반하고 꿈틀거리는 기관으로서의 여성 신체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2000년대에 걸친 브론즈, 마블 조각 몇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에칭 프린트들이 정연하게 걸린 벽면 사이 사이에 놓인 조각들은 돌기, 관, 낭, 요철 등 신체 내부의 기관을 연상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 조각들은 '모성'에 등치되는 보호와 공격, 사랑과 증오, 치유와 고통의 양면을 모두 가진 그의 대표적인 저미 조각 <마망>이 표상하는 여성주의적 세계관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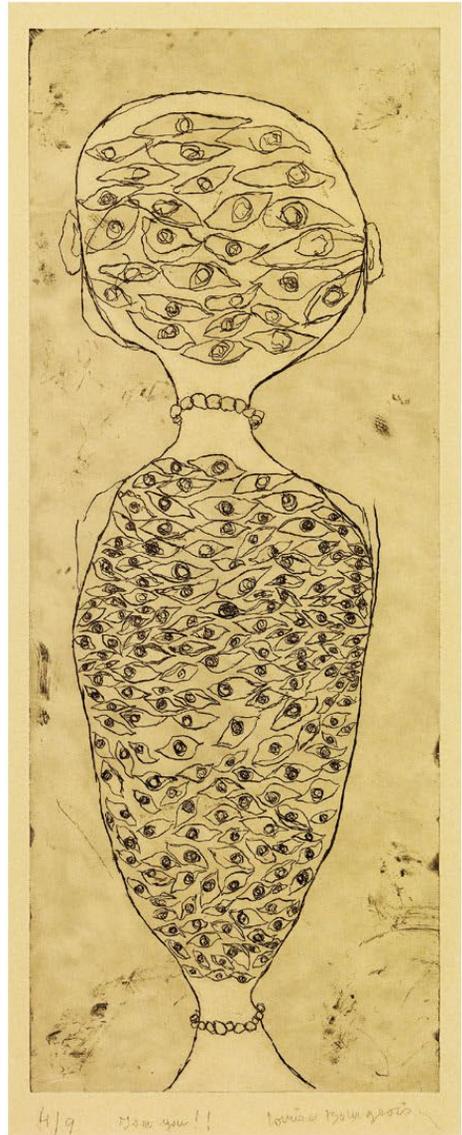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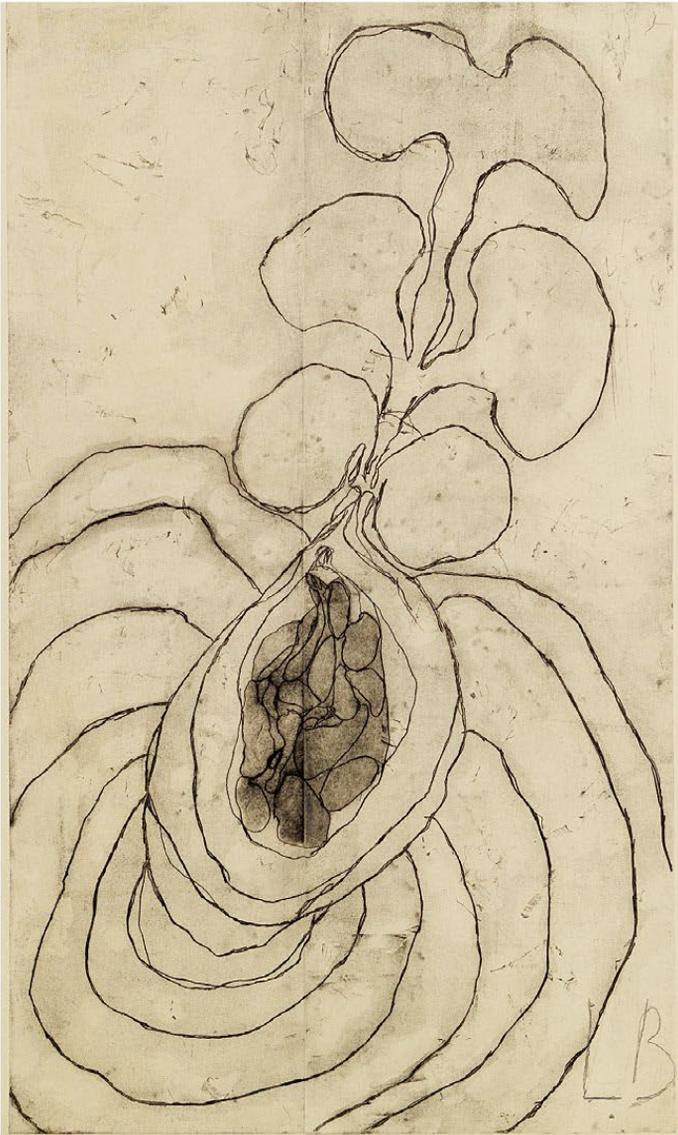
한편, 루이즈 부르주아의 프린트작업들은 조각 못지않게 방대한 비경을 차지하며 작품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 양감을 강조하는 조각과 달리 이 얇은 종이 작업은 에칭 특유의 선적 표현과 연필, 페브릭, 물감을 사용한 드로잉들을 같이 보여준다. 이로써 사유와 감정은 단단한 물적 토대를 벗어나 자유롭고 가벼운 상태에 의탁하여 운반된다. 급기야 전시장을 배곡하게 채운 이 프린트작업들은 부르주아 조각의 강렬함을 상쇄하기에 이른다.

<INWARDS #4> 연작은 밖으로 부풀어 오르고 확장하는 조각적 세계관과 대비되어 말 그대로 '안으로' 향하는 운동을 시도한 결과다. 하지만 그의 조각이 외화를 통해 내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이 프린트작업들은 안으로 향하는 운동을 통해 바깥으로 뻗고, 내면의 탐구에 자리한 타자성을 확인한다. 같은 원리에서 '안으로' 연작은 뒤집어진 쌍들을 반복해 보여준다. 마치 거꾸집의 안쪽 면에서 찍혀 나온 판본처럼, 혹은 뒤집어진 양말이나 장갑의 안팎처럼. 일례로, 부제 'Are You In Orbit?'이 붙은 한쌍의 프린트는 필름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부조의 양각과 음각처럼 보이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면, #2는 #1 이미지를 놓고 가운데 절개선을 중심으로 반을 나누어 상하좌우를 뒤집어 얻어진 형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뒤집힘은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유기체 이미지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가령,

알렉스 카츠 <밀집모자 3>
라비에 유채 243.8×213.4cm
2021_알렉스 카츠
(1927년생)는 무드러운
색감과 팝아트 같은 필치로
인물 초상을 그려왔다. 이번
개인전에는 꽃을 그린 신작이
선보여졌다. 작가는 팬데믹으로
지친 세상을 격려하기 위해
아름답고 서정적인 페인팅을
제작했다.





루이스 부르주아 (TURNING INWARDS #4 (SWELLING))
152.4×93.1cm(원쪽)
(TURNING INWARDS SET #4 (SEE YOU!!!))
151.1×61.9cm(오른쪽)
종이에 에칭 2007, 다양한 매체로 기억, 사랑, 공포 등의 감정을 탐구해 온 루이스 부르주아(1911~2010). 이번 전시 (유리핀투스의 활기)에는 식물을 연상시키는 판화와 조각작품이 출품됐다.

배꼽이라는 신체 기관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뒤집힘이 잘 와닿을 것이다. 배꼽은 모체와의 연결과 분리를 동시에 상징하며, 한 인체에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맞닿아 뒤집힐 수 있는 매듭이자 구멍이다. 마침 <TURNING INWARDS SET #4(THE NEST)>(2009)는 관 또는 줄기처럼 보이는 수직의 선들이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한가운데에 구멍을 그려놓는다. 구멍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형성되고 이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줄기들도 보인다. 가닥가닥의 줄기들이 어쩐지 그 구멍으로 연결될 것만 같다. 결정적으로 마디 굵은 하나의 줄기가 보이는데, 이 줄기는 아코디언처럼 수축했다 펴지더라도 할듯 마디를 좁혀가며 구멍을 향하고 결국 그 한가운데에 꽂힌다. 그런데 이 줄기가 구멍의 바깥으로 뻗어있다고 해야 할지, 구멍의 안쪽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야 할지는 알 길이 없다. 안이면서 바깥인 매듭의 지대가 전체 화면에 형성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구멍과 줄기들, 그 사이의 연결, 수축과 이완, 안과 바깥의 뒤집힘 등은 전체 연작을 아우르는 모티프이다. 그리고 요소들은 단색조를 이루는 종이 안에서 느슨한 긴장 상태를 보여준다. 실제로 식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줄기와 줄기가 엮이거나 다른 일과 줄기에 의존하는 형상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부르주아의 작업이 보여주는 형상은 서정적인 식물의 모습이든 아니든, 그것은 주름지고 늘여지며 유약한 모습으로도 단단히 엮여있는 유기체의 내면이자 바깥을 전달한다.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알렉스 카츠는 작업을 시작한 이래 줄곧 일상적인 대상과 주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담아냈다. 주변 인물을 담아낸 초상화나, 작가가 살고 있는 인근의 정원을 그린 풍경화가 대표적이다. 카츠는 추상표현주의로 수렴하는 당대 회화의 경향과 달리 '사실성'에 입각하여 주변 세계의 '현존'을 드러내는 구상회화를 지속해 왔다. 예의 그 평평한 구성, 전체 화면의 정서를 집약하는 강렬한 색채, 그리고 향후 알루미늄 컷아웃 조각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윤곽으로 카츠의 그림을 간단히 묘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카츠의 작업을 달리 살펴볼 수 있다. 즉, 그의 작업에서 추론되는 미술사적 영향 관계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밝고 강렬한 색채를 강조한다면 마티스를 위시한 유럽 모더니스트나 색채주의자들의 영향을 언급할 수 있지만,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배경을 색면의 단계로 추상화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1950~60년대 미국

회화의 경향을 저론할 수 있다. 또, 미국 동부 교외의 모습을 한적하게 보여주는 풍경화에서는 모던 페인팅의 선배인 밀튼 에이버리의 영향을 꼽아볼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작가 자신도 피력해 온 바, 그의 작업이 보여주는 구체성에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반감이 드러난다. 같은 맥락에서 카츠 그림의 팝적인 요소가 검토될 수 있다. 이로부터 왜 그가 4미터 폭에 달하는 거대한 합판에 그리기를 시도하는지, 알루미늄 소재의 등신대 패널 조각을 제작하는지, 최대한 표정과 동작 등을 단순하게 만들어 되풀이해 그려내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대형 옥외 광고의 표현적/형식적 특징을 어느 정도 차용한다.

요컨대, 카츠의 작업은 팝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는 산뜻하고 기본 좋은 회화다. 이번 전시는 대량 생산된 벽지 이미지, 워홀의 그림, 수많은 역사상의 꽃 그림을 떠올리게 하면서 카츠의 '꽃'을 돌아보게 한다. 또, 중간중간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단순하지만 응축된 감정을 전달하는 표정의 인물화가 함께 있다. <밀짚 모자 2>(2021)는 둘로 분할된 화면에 한 인물의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다. 윤곽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이 얼굴은 모니터에 출력된 디지털 이미지를 슬쩍 슬라이드해서 넘긴 것 같기도 하다. 한날 이미지로 부드럽고도 빠르게 전환되는 인물화는 모란, 진달래, 아이리스 등의 꽃을 늘어 세운 끝에 자리하면서 동일한 위상에 놓인다. 실로, <금잔화>(2001)나 <야생 볼꽃 2>(2020)에 흠어진 꽃송이들은, 단색 화면에 여성 모델이 연속 동작을 취하는 것을 스냅 샷처럼 포착해 나열한 2000년대 후반 작업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가운데 작가는 꽃이든 인물이든 그 변모하는 순간을 빠르게 포착하는 방식으로 회화를 완성한다. 그의 붓놀림은 물감이 채 마르기 전에 다음의 획 또는 색으로 빠르게 옮겨 간 과정을 증명한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 카츠의 관심은 순간순간을 이미지로 확인하는 데 있다.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화쪽으로 옮기면서 분명히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모티프를 이상적인 지점으로 상해하지도, 대상의 핵심 본질 따위를 획득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는 완벽히 휘발하지도 정박하지도 않는 어떤 존재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담아낼 뿐이다. 그림에서 영원성을 찾는 시도를 추상이라 한다면, 그는 단순화하되 추상과는 단호히 결별한다.

/ 허 호 정